

악쉬은 아카시아 벌꿀채밀

-저온 현상/냉해로 인한 아카시아 꽃대 개화상태 불량-
-저온 현상으로 인한 지역별 개화시기 지연-



최 규철 사무총장

따사로운 햇살 속에 아카시아 꽃과 숲이 울창함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은 양봉농가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성수기를 맞이하는 계절이다.

전년도의 최대 흉작으로 양봉농가들은 이른 봄부터 남쪽으로 이동하여 봄벌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5월의 아카시아 꽃이 피기를 기대하며 대 풍작을 기원한다.

금년에는 봄 벌 사육 상태도 양호하여 양봉농가들은 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5월5일경 대구/경북지방 아카시아 채밀장으로 대군을 이끌고 이동을 시작했다.

△ 4월 중순 이후 30℃에 오르내리는 기온으로 남부

지방에서는 잡화 꿀(벚꽃)이 생산되어 금년 아카시아벌꿀 생산이 풍작을 이룰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초반 대구지방의 최고 온도(낮)는 20~24℃ 밤(야간) 8~10℃내로 쌀쌀한 온도로 아카시아 채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온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.

또한 대구/경북지방으로 빨리 이동한 농가들은 5월10일경 첫 채밀을 시작하

였으나 기대에 못 미친 채밀량과, 유밀이 되지 않아 충청권의 채밀을 기대하며 조금 일찍 서둘러 2차 채밀 장소로 이동(5월18일~19일경)했었다.

△ 2차 이동장소인 충청권에서도 저온 현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밀을 하지 못하고 경기남부지방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, 매

년 충청권에서 2회 이상 채밀이 가능한 지역이

고 가장 꿀이 잘 분비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채밀을 못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농가가 다반수 발생했다.

△ 그러나 조금 늦게까지 경북 지방(대구, 양양, 안동, 동해안 일대 : 영덕, 울

진, 삼척 등)근교에 머문 농가

들은 일찍 출발 한 농가보다 2회 정도 채밀이 가능했고, 평년작을 유지 할 수 있었다. 또한 경기도 지역일대 에서는 그런 대로 유밀이 되었으나 저온현상으로 수분이 많아 겨우 1회 정도 채밀을 할수 있었다.

△ 5월26일경부터 연천, 적성, 문산, 철원지방 일대에서 한 낮의 온도가 26℃까지 올라가 막바지 큰 기대를



양봉농가여러분! 이제는 아카시아꿀 생산량비율을 50%로 낮추고 50%는 잡화꿀 생산에 주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.

걸었으나 유밀이 되지 않아 1회 정도의 채밀에 그치고 철원 민통선 내에서도 마지막 정리채밀도 할 수 없는 채밀량과 도봉이 발생하여 채밀에 어려움이 있었다.

△ 특히 강원도 지역의 채밀을 포기하고 남부지방(광주, 해남, 영광 일대)으로 일찍 이동한 농가들은 떼죽나무꿀이 폭밀 되어 2-3회 정도의 채밀이 가능했으며 경기 용인 지역에서도 잡화꿀 채밀이 가능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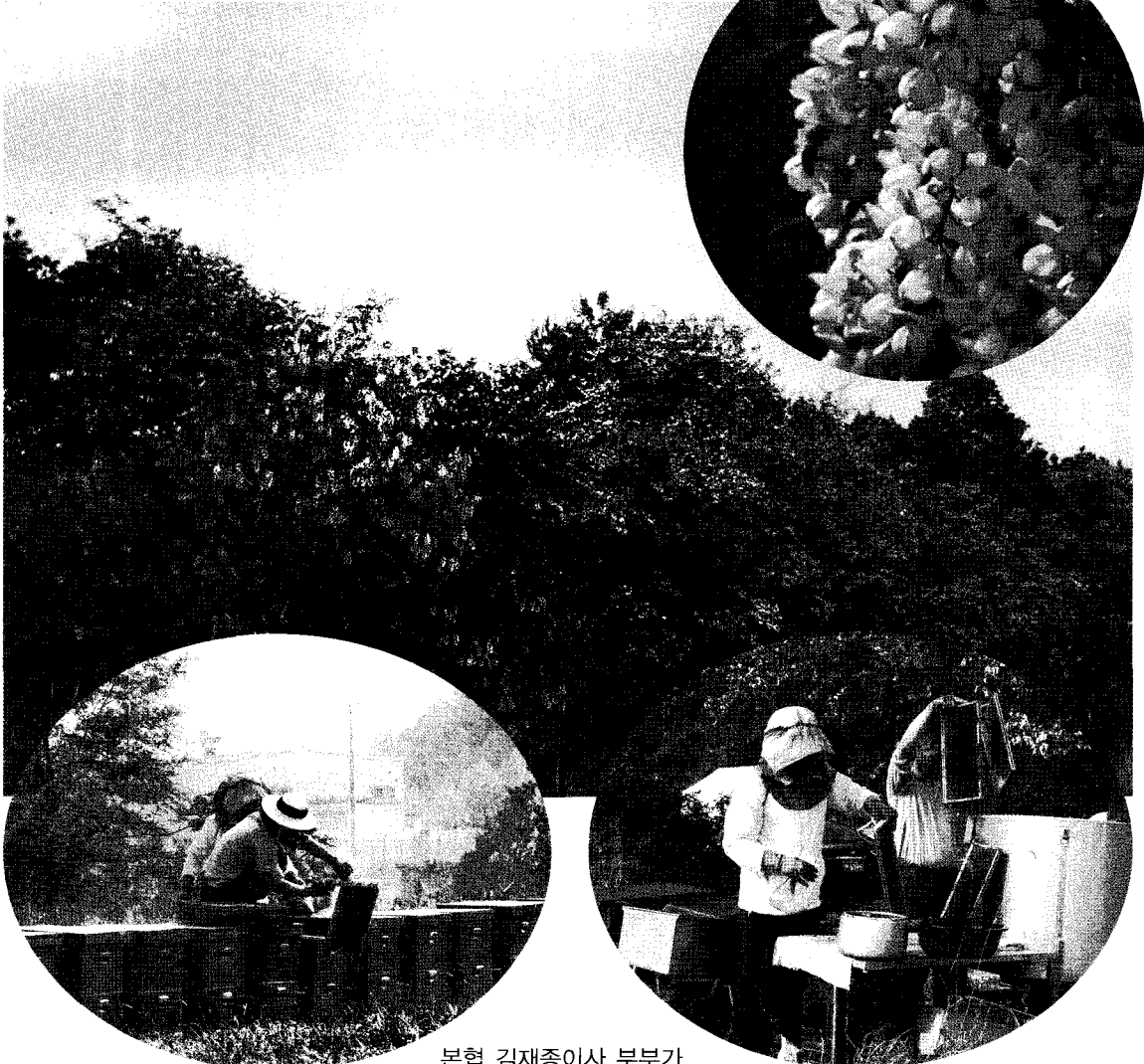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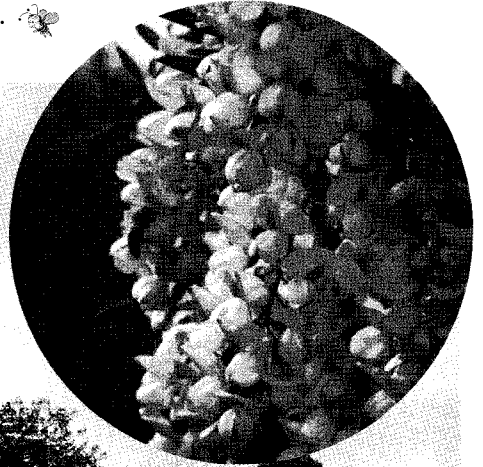
△ 6월1일 비로인해 강원도 철원 민통선 일대의 아카시아 꽃을 남겨두고 아쉬운 아카시아 채밀을 접어야만 했다.

△ 양봉농가여러분! 이제는 아카시아꿀 생산량

비중을 50%로 낮추고 50%는 잡화꿀 생산에 주력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고 봅니다.

앞으로 질 좋은 잡화 꿀(기능성 벌꿀 등)이 오히려 아카시아 꿀보다 경쟁력 있다고 보고 아카시아 꿀 생산이후 잡화꿀 생산에도 주력합시다.

국내 소비자 입맛에는 아카시아꿀 보다 잡화꿀을 더 선호 한다는 모 업체의 설문조사에도 나타난바가 있습니다. 따라서 금년 8월까지의 잡화꿀 및 로얄제리, 화분, 프로폴리스 생산에도 주력하여 농가 소득보존 및 국내시장을 확보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. 🍯



본협 김재종이사 부부가 채밀하고 있는 장면

